



2024 December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하나은행



이*정/0117465**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11월
동향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트레이드' 이슈 반영되며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후반 한은의 깜짝 금리인하 결정 이후 성장을 둔화 우려 영향을 반영하는 가운데 대외적 지정학적 요인의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하락 마감

미 대선 트럼프 당선에 따른 '트럼프트레이드' 반영이 강하게 금리 상승 견인했으나, 이후 대선 불확실성 해소 인식과 연준 금리인하 영향 반영하며 하락 전환 양상 시현

트럼프트레이드 영향이 다소 완화된 국면 속에, 시장 예상에 부합한 10월 CPI 결과와 이에 따른 연준 당국자의 도비시 발언, 국내 성장률 우려 영향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 유지

지정학적 위험 요인, 트럼프의 취임 후 관세 부과 언급 등이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한은의 깜짝 금리 인하 영향 반영 등으로 큰 폭 하락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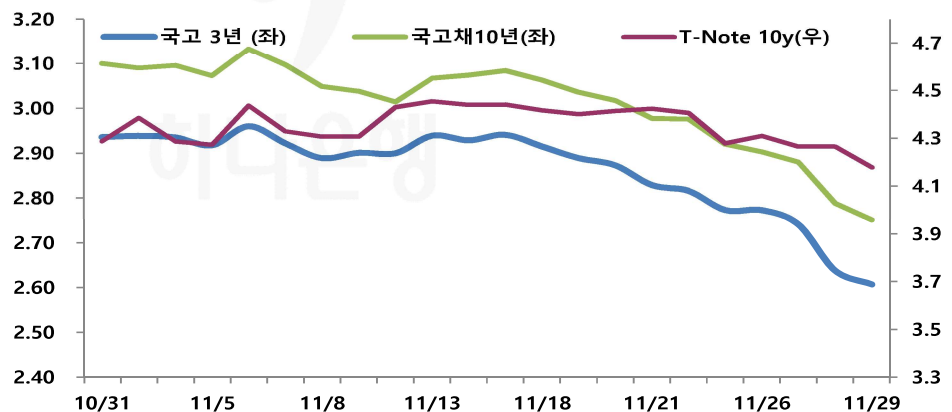
- 월초, 국내외 경제지표 영향 반영 속 미 대선 트럼프 당선으로 국내외 금리 상승 흐름 후, 미 대선 불확실성 해소 인식과 연준 FOMC 금리인하 결정 등을 반영하며 하락 전환 국면 시현
 - 월 초, 10월 미 비농업 지표가 시장 예상 대폭 밑돌며 국내외 금리 하락 출발 후, 트럼프 당선과 공화당 '레드스윙' 가능성 등 트럼프트레이드 반영 속 대외 금리 상승에 연동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
 - 이후, 트럼프 당선 직후 강했던 트럼프트레이드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가운데 대선 불확실성 해소 영향과 11월 FOMC의 금리인하를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전환
- 중반, 시장 예상에 부합한 미 CPI 결과와 국내 성장 우려 속 하락 추세 이어간 국고채 금리는 이어진 파월 의장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언급에 상승 전환. 이어 트럼프트레이드 영향 약화된 국면 속에 연준 당국자의 금리 경로 도비시 기조 언급 등으로 재차 하락 전환 양상 시현
 - 중반, 미 10월 CPI의 시장 예상 부합한 2.6% 상승 영향 속 대내적 성장부진 우려한 금통위 비둘기 성향 기대로 하락 추세 이어갔지만, 파월 의장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론 제기로 하단 제한된 국면 시현
 - 이어, 미 대선 이후 크게 반영된 트럼프트레이드 영향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인 가운데 연준 당국자의 발언이 다소 파월의장 언급과 배치된 비둘기 성향 인식에 따라 하락 국면 지속
- 후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속에 국내 성장 부진 우려를 반영한 한은 깜짝 금리인하 영향 반영한 가운데, 트럼프의 취임후 관세 부과 언급 등이 위험회피 심리에 영향 미치며 큰 폭 하락 마감
 - 후반, 중부유럽 우크라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확전 양상에 안전자산 선호 강화된 가운데 트럼프 취임후 관세 행정명령 서명 소식 등으로 국내 성장부진 우려 확대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지속
 - 이어 한은의 국내 성장 부진 우려를 반영한 깜짝 금리 인하 결정을 소화하며 금리 급락세 시현 후, 수급상 요인에 따른 국고채시장 추격 매수 등으로 하락 추세 이어지며 마감

11월 평균

국고채(3년): 2.87%

T-Note(10년): 4.36%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12월
전망

연준 12월 금리인하 전망과 국내 경기 둔화 우려 증대 등이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국내 정정 불안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등은 하단 제한 요인으로 영향 미칠 전망

평균	1Q24	2Q24	3Q24	4Q24
국고채(3y, %)	3.30	3.38	2.95 ^(F)	2.70 ^(F)

미국 '25년 물가 둔화 국면 이어질 전망 속 고용 냉각 중시 기조 유효한 상황 등이 추가 연준 금리인하에 영향을 미칠 가운데 이에 영향을 국고채 금리도 반영하겠지만, 최근 국내적 상황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12월 초반 국내 정정 불안 충격에 따른 원화자산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영향 불가피 속에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 확대가 예상

12월 국고채(3Y) 금리는 2.50%~2.70%

- '25년 미국 물가 둔화 국면이 연준 경로에 근접해가는 가운데 고용 냉각 중시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 여기에 트럼프트레이드 영향 상존에도 금리인하 기조를 선호할 트럼프 2기 체제 고려 시, 미 국채 금리 하락과 이에 대한 영향은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 미칠 전망
 - 최근 미국 물가가 연준의 '25년 전망 2.2% 경로에 부합해가는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고용 냉각 등 경기둔화 방어 중시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 정책 기조 국면
 - 반면, 시점간 트럼프트레이드 영향이 상존하고 있지만 향후 미국 경제의 약달러 선호를 통한 금리인하 기대가 높은 트럼프 2기 체제 고려 시, 연준의 연내 마지막 금리 인하 결정이 예상되는 형국. 이에 국고채 금리도 동 영향의 동조적 영향이 반영될 전망
- 12월 초반 급작스레 불어닥친 대내적 정국 불안 충격으로 원화 자산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의 불안정성 확대 등이 중단기적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될 전망
 - 12월 초반, 국내 정국 불안 충격에 따른 원화 자산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 속에 연이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국면에 따른 자금 이탈 압력 등이 국고채금리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
 - 특히, 원화 자산에 대한 변동성의 중단기 확대에 환율 상승 추세가 재차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 비둘기 기조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측면은 금리 하단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5년 국내 성장 전망 1.9%로 낮춰진 가운데 연속 금리 인하 결정 등이 경기 불확실성 우선 대응 함축한 것으로 보임. 여기에 11월 소비자물가 1.5%로 예상에 부합한 국면과 연준 인하 기조 추종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인하 예상 등이 국고채 금리 하락 견인할 전망
 - '25년도 국내 성장 전망이 잠재성장을 하회한 1.9% 전망되며 대내 경기 성장 둔화 우려가 크게 확대된 점이 시장의 선제적 시장 금리 하락 추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여기에 국내 11월 소비자물가 1.5%로 예상 부합한 상황에서 대외 연준 추가 금리인하 영향도 한은이 선제적이진 않지만 후속적으로 현 기조를 이어가게 할 것이란 전망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판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대내적 정치 불안정성 확대 등에 따른 자본시장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 트럼프 2기 체제 출범 전 유효한 트럼프트레이드 일부 영향	· 한은의 국내 성장 전망 하향 조정 속 경기 불안정성에 대한 정보의 시장 선반영 가능성 · 국내 정정 불안에도 한국 신용등급 유지 요인

자료: 하나은행

달러/원 환율

11월
동향

트럼프 재집권 확정에 따른 정책 리스크와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한 글로벌 달러 강세에 환율 급등하며 1,400원대 진입. 다만, 외환당국의 강한 시장안정 의지에 추가 상승 제한되며 1,390원대 마감

연준의 두 차례 연속 금리인하 단행에도 트럼프 재당선으로 정책 리스크 현실화 우려가 확산됨. 이에 글로벌 강달러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은 급등 후 1390원대에서 등락

- 월초, 미 고용 충격과 11월 FOMC 추가 금리인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확정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달러 강세를 자극하면서 환율 상방 압력이 중대
 - 월초, 미 비농업 취업자 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허리케인과 파업에 따른 일시적 감소로 평가되며 충격은 제한된 가운데 트럼프 미 대선 승리 예상 속 장중 20원 넘는 변동폭 기록하며 급등
 - 11월 FOMC의 금리인하 결정과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한 파월 의장 발언에 달러 강세 흐름이 잠시 진정되었으나 트럼프 내각 인선과 정책 행보에 대한 우려 속 트럼프 트레이드 재개되며 1,390원대 등락

트럼프 리스크와 연준 금리인하 속도조절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 점증에 재차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외환당국 속도조절에 대한 경계심리 강화되며 상승 압력이 다소 누그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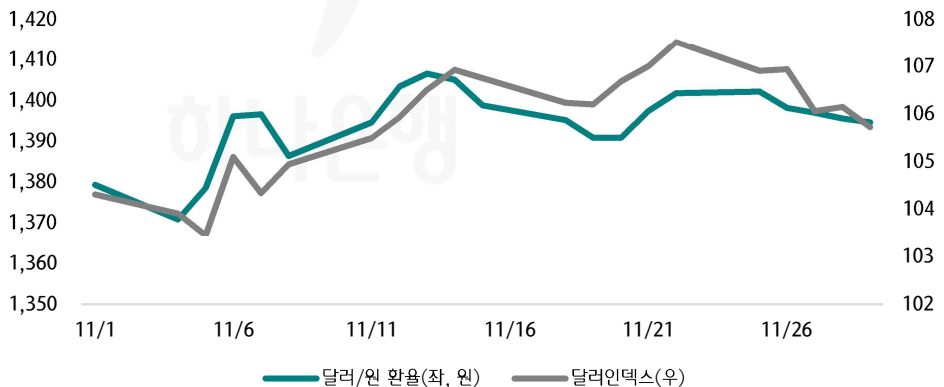
- 월 중반, 미 공화당의 레드스웍으로 트럼프 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우려와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시사에 연고점 경신 후 외환당국 개입 경계 속 상당 제한
 - 중반, 미 공화당의 양원 장악으로 트럼프 리스크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어지며 1,410원까지 고점 높인 후 외환당국 구두개입 영향 속 추가 상승 제한
 -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 Fed 금리인하 속도 조절론이 부각되며 달러는 견고한 지지력을 보였으나 국내 반도체주 회복세와 고점 인식 속 매도 우위의 수급 여건에 1,390원 전후에서 등락 흐름 시현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금통위 금리인하 결정과 한국 성장을 전망치 하향 조정 등 펀더멘털 약화 우려에도 당국의 시장안정화 의지 표명에 상당 제한되며 1,390원대 마감

- 후반, 지정학적 리스크 점증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미국의 상대적 성장 우위 등 달러 강세 요인과 예상보다 비둘기적인 금통위에도 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에 1390원대에서 횡보
 - 후반, 러-우 전쟁 확산 양상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견조함 등 강달러 재료 부각되며 재차 1,400원대 진입 후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확대 추진 소식을 반영하며 하락 전환
 - 한은 금통위의 예상 밖 금리인하 결정과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 등 도비시한 결과에도 외환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 표명과 시장 안정화 조치 언급에 원화 약세 압력 제한되며 1390원대 중반 등락 마감

11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94.3
11월말 달러/원 환율
: 1,394.7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하나은행

12월 전망

미 신정부 정책과 연준 금리인하 경로 관련 대외 불확실성에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 이어지는 가운데 원화 자산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저하로 환율 상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

평균	1Q24	2Q24	3Q24	4Q24
달러/원 환율(원)	1,329	1,371	1,358	1,400 ^(F)

12월 FOMC 금리인하 전망에도 트럼프 차기 정부의 정책 리스크와 연준 금리인하 속도 조절론 등 불확실성과 미국의 상대적 성장 우위 등에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은 유지될 전망

-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향방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확실성과 미 경제의 상대적 견조함 등에 달러는 당분간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 미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정체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이 정책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점진적일 가능성을 잇달아 시사했음에도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은 달러 약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전망
 - 그럼에도 견조한 소비에 힘입은 미 경제 성장세와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 등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12월 FOMC가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일 경우 달러 강세를 재차 자극할 것으로 보임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대내적 정치 리스크로 인해 원화의 추가 약세 압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불안감을 반영한 유로화 약세는 달러 강세 기조를 강화할 요인이나 BOJ 추가 긴축 기대감을 반영한 엔화 강세가 이를 완화할 것으로 판단
 -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 성장 부진으로 유럽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독일, 프랑스의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유로화 약세가 심화된 점은 달러 강세 기조를 강화할 소지
 - 다만, 우에다 BOJ 총재가 금리인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며 BOJ 추가 긴축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12월 금정위가 매파적 인식될 경우 엔화 가치 급등하며 달러는 약세 압력 받을 전망

12월 달러/원 환율
1,380원 ~1,435원 예상

- 한국 경기 하방 리스크가 부각된 가운데 대내적 정세 불안까지 더해지며 대외 신인도 악화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나타날 경우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
 - 11월 금통위에서 부각된 한은의 비둘기파적인 기조 속 '25년 한국 성장을 전망치 1.9% 하향 조정과 수출 증가율 연속 둔화 등 우리나라 편더멘탈에 대한 불안감에 원화 약세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한국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켜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할 가능성은 원화 자체적인 약세 압력을 확대할 요인이나 당국 시장 안정 의지에 상단 제한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 미 신정부 정책 리스크 현실화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 국내 경제 체력 약화와 정국 불안 속 원화 편더멘탈 우려	· 금융당국의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단행 가능성

자료: 하나은행

이중통화

엔/원 전망

11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3.5

11월 엔/원 평균환율
: 908.0

12월 엔/원 예상범위
: 935~955원

연준의 12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속 물가 부담에 대한 우려에 긴축 의지를 내비친 BOI 총재 언급 등의 요인이 미-일 금리차 축소를 통해 엔화 환율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엔화 동향) 추가 금리인상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시사한 우에다 BOI 총재의 발언에 소폭 강세를 보였으나 트럼프 재집권 확정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과 도비시한 BOI 의사록에 약세로 전환. 중반, 예상보다 다소 매파적인 파월 Fed 의장 발언에도 일본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양호하게 나타난 측면을 반영하며 약세 폭을 일부 되돌림. 후반, 도쿄 인플레이션 반등 소식에 BOI 12월 금리인상 전망에 힘이 실린 가운데 149엔대로 강세 전환하며 마감
- (엔/원 전망) 현 엔화 약세 기조에도 여전히 무역적자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부담을 통한 내수 부진도 영향이 전이되는 형국. 그럼에도 BOI내 추가 긴축 의지가 소폭 불거지는 양상과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미-일 금리차 축소 영향 등이 단기적으로 엔화 강세 견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물가가 여전히 2% 상회하며 내수회복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국면 속 최근 환율 150엔 상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측면 등이 BOI의 통화완화 틀을 유지하게 하려는 유인으로 판단
 - 그럼에도 최근 물가 반등 우려 등에 대한 BOI의 추가 긴축 의지가 일부 표명되는 국면 속 연준 추가 금리인하 전망에 따른 대내금리차 축소 등이 단기적으로 엔화 강세 견인할 가운데, 엔/원 환율은 최근 불거진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의한 원화 약세 요인에 의해 950원 전후로의 상승 흐름이 예상

유로/원 전망

11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623

11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80.9

12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65~1,500원

ECB의 금리인하 기조의 소비 진작 효과가 다소 시차를 보일 가운데 독일 제조업 침체 등에 따른 유로존 경기회복력 약화와 이에 대한 시장의 빅컷 기대 등이 선제적 유로 약세 지속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유로화 동향) 유로존 물가 반등에 ECB 빅컷 기대가 약화되며 강세 출발했으나 트럼프 미 대선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유럽 수출 타격 가능성과 독일 정국 불안 속 약세로 전환. 중반, 12월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ECB 위원들의 도비시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약세 흐름 지속. 후반,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와 독일 성장을 부진 등 유로존 경제 성장 모멘텀 약화 우려에 1.03달러대로 하락 후 일부 ECB 위원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주장에 소폭 반등 마감
- 독일 중심 제조업 침체가 유로존 전반 경기회복력을 여전히 제한하는 국면. 상반기 후반부터 이어진 금리인하의 내수 진작 효과는 시차 고려시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 여기에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 통상마찰 등의 유로존 전이 우려 고려한 12월 ECB 빅스텝 정책 등이 유로 약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독일 제조업 침체가 유로존 전반의 경기 회복력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 속에 금리인하의 소비회복력 복원에도 다소 시차가 소요될 전망
 - 여기에 미 신정부 출범 후 중국과 통상 마찰 유로존 전이 가능성 상존으로 ECB 추가 금리인하 전망이 유로 약세 견인할 가운데 유로/원은 최근 국내 정정불안 속 상대적 원화 약세로 다소 큰 폭 상승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4년 12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미국고용보고서	7
국제선 유통할증료 인상 한 11월 수출/입(YoY +4.6%, +1.7%)	한 11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48.3) 미 10월 건설지출(MoM +0.1%) 11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ISM 고용, 제조업, 구매물가 중 11월 Calmix 제조업 PMI(50.3) R 10월 생산물(YoY 6.3%) 11월 HCOB 제조업 PMI(F) 일 11월 지분 은행 중앙, 서비스 PMI(F)	한 11월 CPI(MoM +0.0%, YoY +1.3%) CPI 근방(YoY +1.8%) 미 10월 구인여적보고서 구인건수(7,443m)	미 10월 제조업수주(MoM -0.5%) 내구재 주문(F) 11월 ADP(임가치 변동)(33%) S&P 글로벌 서비스업, 중앙 PMI(F)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중 11월 Calmix 중앙, 서비스 PMI 중 10월 PMI(MoM -0.4%, YoY -3.4%) 11월 HCOB 서비스, 중앙 PMI(F) 일 11월 지분 은행 중앙, 서비스 PMI(F)	한 3Q GDP(F)(QoQ +1.5%, YoY +0.1%) 미 11월 Challenger Job Cuts(YoY +50.9%) 유 10월 소매판매(MoM +0.5%, YoY +2.9%) 북 10월 공장수주 전달비 (4.20%)	미 10월 소비자신용지수 11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12k)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28k) 제조업(업종별), 실업률(4.1%) 시간당 평균 임금(MoM +0.4%) 경제활동 참가자(62.9%) 12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인형(F) 미시간 1년, 5-10년 만물레이션(P) 유 3Q GDP(F)(QoQ +0.4%, YoY +0.9%) 고용(F)(QoQ +0.2%, YoY +1.0%) 일 10월 선행지수, 동행지수(P)	
8	9	10	11 지준일	12 ECB 통화정책회의	13	14
	미 10월 도매물, 도매제조(F)(MoM +0.3%) 중 11월 CPI(YoY +0.3%), PPI(YoY -2.9%) 통화금 M2(YoY +7.5%) 유 12월 엔믹스 투자자기대지수(-12.8) 일 3Q GDP(F)(QoQ +0.2%, YoY +0.9%) CPI 민간소비(F)(QoQ +0.9%) 11월 경기관심조사 연형, 전망(47.5, 48.3)	RBA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35% 유지 [재판] 미국 3년을 국제 입찰 미 11월 NFIB 소매업 낙관지수(93.7) 중 11월 수출/입(YoY +12.7%, -2.3%) 일 11월 통화량 M2(YoY +1.2%) 북 11월 CPI (YoY, MoM) CPI 민간소비(F)(QoQ +0.9%)	[재판] 미국 10년을 국제 입찰 한 11월 실업률(2.7%) 12월 1-10월 수출/입(YoY -17.8%, -21.0%) 미 11월 CPI(MoM +0.2%, YoY +2.6%) CPI 근방(MoM +0.3%, YoY -3.3%) 일 11월 PMI(MoM +0.2%, YoY +3.4%) 공적기계 추위(F)(YoY +9.3%)	ECB 통화정책회의: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3.25%로 25bp 인하 [재판] 미국 30년을 국제 입찰 미 11월 PPI(MoM +0.2%, YoY +2.4%) PPI 근방(MoM +0.3%, YoY +3.1%) 호 11월 실업률 (4.10%), 경제활동참가율 (67.10%)	한 11월 수입물가(MoM +2.2%, YoY -2.5%) 수출물가(MoM +1.7%, YoY +2.0%) 미 11월 수입물가(MoM +0.3%, YoY +0.8%) 수출물가(MoM +0.8%, YoY -0.1%) 유 10월 산업생산(MoM -2.0%, YoY -2.8%) 일 10월 소비자물, 광공업생산(F) 영 12월 GUK 소비자기대지수(-1.8)	
15	16	17 미국FOMC(~18)	18 BOJ 금융정책위원회(~19)	19 BOE 통화정책회의	20	21
	한 10월 통화금 M2(MoM +0.2%) 미 12월 뉴욕주 제조업지수(31.2) 중 11월 신규주택가, 실업률(5.0%) 중앙은행(YoY +5.3%) 소매판매(YoY +4.8%) 일 10월 핵심기계수주, 3차 산업지수	미국 FOMC(~18) :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4.50%~4.75%로 25bp 인하하며 2연속 금리 인하 단행 [재판] 미국 20년을 국제 입찰 미 11월 소매판매(MoM +0.4%) 광공업생산(MoM -0.3%), 설비가동률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46)	BOJ 금융정책위원회(~19) :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0.25%로 2연속 동결했으나 시장에서는 예상적 동결로 평가 미 11월 주택차관대출(MoM -3.1%) 건설투자(MoM -0.6%) 유 10월 건설 생산(MoM +0.1%) 11월 CPI(F)(MoM +0.3%, YoY +2.0%) CPI 근방(F)(MoM +0.2%, YoY	BOE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75%로 25bp 인하.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미 3Q GDP, GDP 물가, 개인소비(F) 11월 선행지수, 기준주택매매 호 12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 (3.80%)	한 11월 PPI(YoY +1.0%) 미 11월 PCE 물가, 근방 PCE 물가지수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12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인형(F) 미시간 1년, 5-10년 만물레이션(P) 유 12월 소비자기대지수(P) 일 11월 한국, 국내 CPI 북 11월 PPI(MoM 0.20%, YoY -1.10%) 영 11월 소매판매 (자동차연료 포함/제외) (MoM-0.70/-0.90%, YoY	
22	23	24	25 한국휴장(크리스마스)	26	27	28
	[재판] 미국 1년물, 2년물 국제 입찰 한 12월 1-20일 수출/입 (YoY +5.8%, +1.0%) 미 11월 시가과 연방 국기활동 지수 12월 월라벨리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5.5)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영 민간소비 QoQ (0.50%)	미국, 홍콩 조기폐장(크리스마스 이브) 한국 금융안정회의 :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상황 점검하는 회의이며 2025년 첫 금통위는 1/16일(목) [재판] 미국 5년을 국제 입찰 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101.7) 미 11월 내구재 주문(F) 신규주택매매(MoM -17.3%) 라치론드 연방 제조업지수	[휴장] 한국, 미국, 홍콩, 영국, 독일 (크리스마스 연휴) 일 10월 동행지수, 선행지수(F) 11월 PPI 서비스(YoY +3.4%)	[휴장] 영국, 독일, 홍콩(박싱 데이) 한 11월 소매판매 일 11월 주택차관대출	BOJ 10월 금형외 요악분 공개 한 11월 기업경기실사 제로점, 비제조업 미 11월 도매제조(F), 소매제조 중 11월 광업기업이익, 산업생산 일 11월 실업률, 유로구안배를 소매판매, 주택차관대출, 광공업생산(P) 12월 도쿄 CPI, CPI 근방	
29	30 2024년도한국증시폐장일	31 한국휴장(연말 휴장)	12월 주요 ISSUE 미국 사이버리덴(12/2) RBA 통화정책회의(12/10) OPEC 일간 원유시장 보고서(12/11) ECB 통화정책회의(경제전망)(12/12) 한국 연방, 유산 동시 만가일(12/12) 코스닥200, 코스닥150 정기변경(12/13) 미국 FOMC(경제전망)(12/17-18) BOJ 통화정책회의(12/18-19) BOE 통화정책회의(12/19)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12/27)	미리보는 1월 주요 ISSUE 2025년 첫 주시 개재(1/2) CES 2025(1/7-10) 출산인가일(1/9) P&G 연 헬스케어 컨퍼런스(1/13-16) 한국 금융정책위원회(1/16)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20) 세계경제포럼(WEF)(1/20-24) BOJ 통화정책회의(1/23-24) 미국 FOMC(1/28-29) ECB 통화정책회의(1/30)		

하나은행

이*정/0117465**



하나은행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